“누가복음 5장 27절~32절 강해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5장 27절~32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352장(새찬송 313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상주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수리아 지방으로, 남쪽으로는 유대와 애굽지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버나움을 지나는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에 대한 로마 정부의 조세 정책은 매년 정해진 부과 금액을 각 지역에 할당하고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최고 입찰자에게 팔았습니다. 징수권리를 획득한 사람이 할당된 금액 이상을 납세자들에게 부과하여도 납세자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악용하여 세리들이 치부(致富)하였습니다. 묵인된 부정축재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인두세 등을 징수하는 세리가 있고, 세관에 근무하면서 통관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후자에 속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에 그 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한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는 히브리어로 부르는 이름과 함께 헬라어로 부르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레위’의 헬라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따르게 된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메시야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뜨거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그에게 누적되면서 드디어 그는 세관에서의 일을 그만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을 지날 때면 ‘레위’가 세관 입구로 나와서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친 일이 있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레위’의 심중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를 부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본문에 ‘보시고’라고 번역된 원어(에데사토)의 원형(데아오마이)은 사물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며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레위의 태도와 눈빛이 마치 “예수님, 나를 불러 주세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매사를 정확한 때에 확실하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이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눈 여겨 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28절에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하였습니다. ‘레위’의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쉽지 아니한 것입니다. 안정되고 수입이 많은 직업을 미련없이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29절에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료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되도록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단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주님을 따르게 된 것만이 아니라 내심 바랐던 일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는 성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책으로 인한 고달픔과 삶의 허무와 무의미로 인한 짓눌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고 싶은 심정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행복을 실감할 때가 많이 있었을 터인데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를 알리고 그들도 복음의 은총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여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직으로 혹은 각 부서에서 주님을 섬겨 헌신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 보았습니까? ‘레위’의 과단성과 적극성을 띤 신앙적 태도는 모범적이며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한 것은 예상 밖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레위’의 집으로 사람들이 모여 드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인가 하여 와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그들은 모인 사람들이 세리들 그리고 그들이 판단할 때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의인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들과 교제하는 것이 합당한데 세리를 비롯하여 죄인 취급받는 자들과 식사 자리에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율법과 예언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그릇되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그들이 해석한 율법대로 살려고 대단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성경에 부합되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31절과 32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일침을 가하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두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병든 자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의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착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 자칭 의인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모두 죄성(罪性)을 가진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건강한 자 즉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고 하였습니다.

②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에 메시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구원의 복음’(엡 1:13) 이며 또한 ‘천국 복음’(마 4:23, 24:14)입니다. 구원과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윤리와 도덕, 철학과 사상, 학문과 종교, 자선과 선행으로는 구원과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관하여 바른 이해와 실천이란 더 없이 중대합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개를 몇 단계로 나누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혼란을 줄 뿐입니다.

회개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불신자에게 요구되는 회개입니다. 이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던 초기에 크게 활약했던 인물 중에 최봉석 목사님이 있습니다. 1869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33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45세에 목사가 되어 86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최봉석 목사님의 전도 메시지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예수 천당” 이 두 마디입니다. 그의 외친 메시지는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마 3:2, 4:17)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마 10:7, 막 6:12)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

이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행 3:19) 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말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6~48) 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였고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알려졌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참으로 진하고 강하여 좀처럼 제거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선민이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과의 차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그릇된 선민의식이지만 일단 마음에 박히면 좀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파격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보이셨고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어 지시하신 사실과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끝맺기를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행 11:15~17)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였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새 생명이며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성경에서 회개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고 정의(定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라는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의 외치신 말씀에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을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이며, 영생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이며, 영생 얻는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이며, 영생 얻는 회개입니다. 국어사전에는 회개를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고 풀이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회개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성찰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은 회개할 때 수반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런 행위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인간의 행위는 그 무엇도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사함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영생 얻는 회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회개입니다. 기이한 것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성찰과 반성은 부지런히 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수양하고 도를 닦는 것은 좋게 여기면서 회개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은 하면서도 회개하는 것은 배척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역사의 종말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훼방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이룩한 찬란한 문명과 도시와 산업과 재물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불타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하고 울고 애통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보다 놀랍고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화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조대가 달려가서 이들을 극적으로 구출해 내는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구출되는 순간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박수를 치게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장면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 건짐 받아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하였습니다.

둘째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회개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일생 동안 행하게 되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마음과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회개를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분별없이 따라서 행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고 그것이 옳거나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관습은 충분히 검증된 것이니 다 좋은 것이라고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의 관습, 유행, 오락, 생활 방식을 무조건 배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멀리하거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깊이 사귈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을 사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나약하게 되느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신앙생활의 열정이 더해지느냐를 감안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지 살펴서 취사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빛의 열매가 없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행할 일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한 자를 돕는 일은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속여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행위를 두둔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편에 가담하였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과 손실을 개의치 않고 감내합니다.

셋째,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였습니다. 세월은 머무름이 없습니다. 유수와 같이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람의 한 평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세월을 잘 활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에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주님의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각 사람이 일한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고 베풀어 주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을 가리켜 '주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죽도록 열심히 일하여도 결국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고 맙니다. 열심히 살고도 사실은 세월을 낭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혹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계시된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성도라면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지혜롭고 옳았다는 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이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이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요약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적인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이비이단들에게 미혹 받기 쉽습니다. 혹은 정죄의식을 벗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영히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종교다원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무늬만의 그리스도인, 무늬만의 목사이지 실상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일생 동안 해야 하는 회개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행하지 못하여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빛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행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회개를 하여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고치는 회개를 하여 신앙생활에 향상과 진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